

주간 전남 농업

VOL. 258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11월 둘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겨울나는 풀사료, '곡곡' 눌러주면 '쑥쑥' 늘어요
정책동향 및 홍보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대상 선정
전남 시군 농정 동향 구례군, 양봉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개최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1. 11.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9도, 최고기온 : 13~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토마토, 딸기
- ▶ 풋고추, 애호박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농촌진흥청, 겨울철 필수 돈사 관리 방법 제시
- ▶ 겨울나는 풀사료, ‘꼭꼭’ 눌러주면 ‘쑥쑥’ 늘어요

- ▶ ‘복숭아·자두·매실’, 성숙기에 노린재 피해 가장 커
- ▶ 고구마 신품종 ‘진율미’, 현장평가회서 우수성 입증
- ▶ 땅 속 숨은 천연 혈당강화 소재 ‘돼지감자’
- ▶ 찻잎의 ‘체지방 감소 성분’ 대량 추출 기술 개발
- ▶ ‘겨울의 문턱’, 대관령은 한우도 이제 집으로
- ▶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농업인을 속이는 종자, 시장에서 퇴출
- ▶ 전남 농업용 하천수·지하수 수질 양호

5.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5

- ▶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대상 선정
- ▶ 식용곤충 단백질만 쏙쏙 뽑아 식품원료로 이용한다
- ▶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지급
- ▶ 농촌진흥청, 종자 특성 판독 기술 보급 시작
- ▶ 검정보리 활용, 디카페인 ‘보리커피’ 개발
- ▶ 전남도, 농특산물 1천170억 원 구매약정
- ▶ 기술 표준화로 화분 매개 곤충 생산 효율 높인다
- ▶ 롯데슈퍼, 전남쌀 팔아주기 앞장
- ▶ 축산 현장 수의사 가축 질병 예방 앞장
- ▶ ‘쌀의 무한변신, 라이스쇼(RICE SHOW)’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8

- ▶ 담양군, 시목단감 으뜸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 ▶ 곡성군, 명품 멜론에 이은 명품 체리 생산을 위해 뭉쳤다
- ▶ 곡성군, 곡성멜론 생산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약
- ▶ 곡성군, 2019년산 태풍피해 벼 첫 매입 시작
- ▶ 구례군, 가을 농촌일손 돕기 대대적 추진
- ▶ 구례군, 양봉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개최
- ▶ 해남군, 새 브랜드 쌀‘땅끝햇살 秀’출시
- ▶ 함평군,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모링가 먹고 체험하는 팜파티 큰 호응

7. 해외 농업정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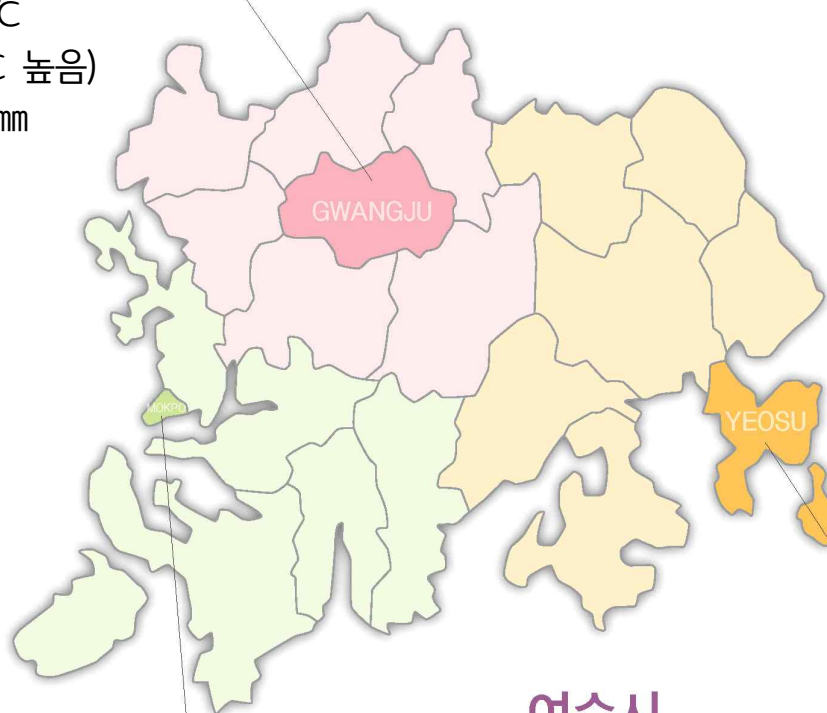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1. 11. 시카고 선물거래소)

8. 농식품 빅데이터(관측)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8

- ▶ 농촌진흥청 농사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0.6℃
(평년대비 1.1℃ 높음)
- 최고기온 : 15.3℃
(평년대비 0.6℃ 높음)
- 최저기온 : 5.9℃
(평년대비 0.8℃ 높음)
- 강 수 량 : 1.6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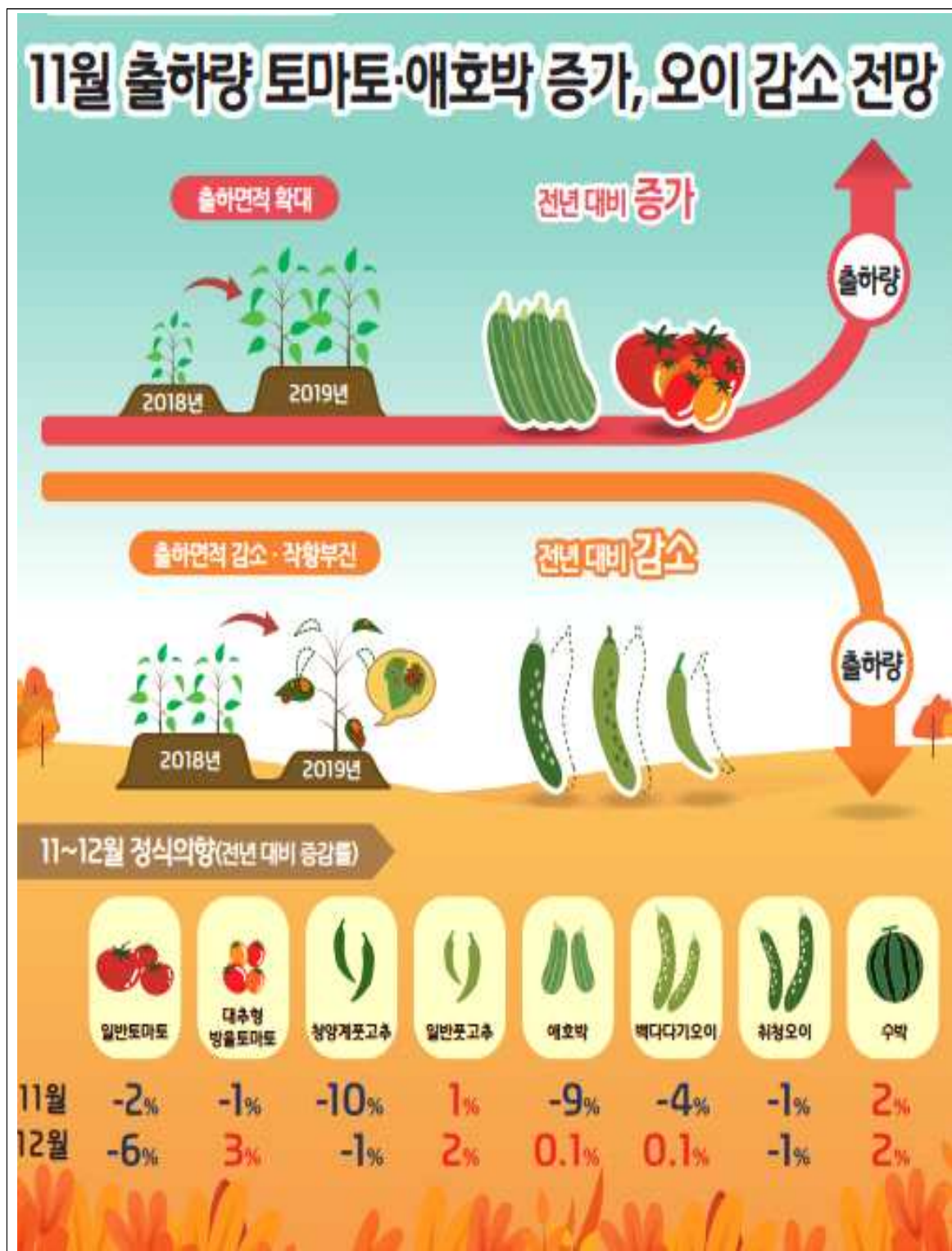


목포시

- 평균기온 : 12.0℃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15.1℃
(평년대비 0.2℃ 낮음)
- 최저기온 : 8.9℃
(평년대비 2.1℃ 높음)
- 강 수 량 : 1.2mm

여수시

- 평균기온 : 12.5℃
(평년대비 1.3℃ 높음)
- 최고기온 : 16.6℃
(평년대비 1.7℃ 높음)
- 최저기온 : 8.4℃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1.0mm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마토

● 출하 전망 : 11월 출하량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 11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호남지역에서는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와 전년 기상여건 악화로 출하를 일찍 포기했던 농가가 올해는 출하를 지속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남지역의 경우 신규 시설면적 확대와 타 작목에서의 전환으로 출하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11월 단수는 기상악화로 인한 착과 불량 및 생리장해(과 비대 저조, 착색 불량 등) 발생 증가로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흐린 날이 지속되면서 병해충(충채벌레, 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등) 및 바이러스 발생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월 출하량은 단수가 감소하나,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11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5,200원)보다 낮은 상품 5kg상자에 1만 2천 ~ 1만 5천 원으로 전망된다.



딸기

● 출하 전망 : 11월 출하량 전년보다 3% 증가 전망

- 11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에는 딸기 정식이 적기에 이루어져 정식 및 생육 지연으로 출하면적 감소폭이 컸던 전년보다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월 단수는 전년보다 3% 감소할 전망이다.
- 정식 이후 잦은 비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 태풍 등으로 병해충(시들음병, 탄저병, 응애 등) 피해가 전년보다 늘어 착과 불량, 과 비대 부진 등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월 출하량은 단수가 감소하나,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 출하면적은 신규 및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보다 1% 증가할 전망이다.

● 가격 전망 : 11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딸기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는데다, 병충해로 품질이 좋지 않아 전년(4만 6,500원)보다 낮은 상품 2kg상자에 3만 6천~3만 9천 원으로 전망된다.



풋고추

● 출하 전망 : 11월 출하량 전년보다 14% 감소 전망

- 11월 일반풋고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에서 최근 출하기 가격이 낮아 정식면적이 감소하였고, 경남지역의 경우 타 품종으로 전환한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1월 단수는 호남과 경남지역의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14%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11월 가격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11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3만 700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4만 6천~5만 1천 원으로 전망된다.



애호박

● 출하 전망 : 11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11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주광역시, 전남 구례·광양에서는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작황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진주에서는 올해 토양계량지원사업으로 뿌리 활착이 향상되는 등 애호박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11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11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700원)보다 낮은 상품 20개에 1만~1만 3천 원으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11. 11. 기준 / 단위: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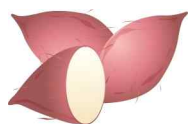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47,300	47,300	↓ 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740	49,660	39,127	↑ 20.9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35kg	190,000	190,000	↑ 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200	187,400	156,867	↑ 21.1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25,200	25,200	↓ 2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640	34,650	24,265	↑ 3.9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22,500	21,400	↓ 5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440	48,550	31,847	↓ 29.3

식량작물

배추(가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9,100	9,400	↑ 1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7,900	5,947	↑ 53.0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35kg	9,700	9,000	↑ 1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760	8,200	6,662	↑ 45.6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54,667	53,000	↑ 5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333	35,583	42,968	↑ 27.2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15,000	14,800	↓ 3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200	23,650	20,540	↓ 27.0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30kg	432,000	432,000	↓ 2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0,000	586,000	474,000	↓ 8.9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57,600	64,800	↑ 5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60	38,350	47,257	↑ 21.9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3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30,000	130,000	↓ 30.8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11,700	11,200	↓ 1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440	14,450	20,117	↓ 41.8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56,600	57,800	↓ 1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80	63,350	40,753	↑ 38.9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kg	1,760	1,840	↓ 1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44	2,055	1,817	↓ 3.1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5kg	23,000	20,200	↓ 2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040	31,600	23,010	0.0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개	15,800	13,800	↑ 8.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840	14,600	10,093	↑ 56.5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33,200	34,600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320	34,450	24,850	↑ 33.6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5kg	18,800	18,400	↓ 1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80	22,150	17,940	↑ 4.8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31,200	33,800	↓ 1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7,800	36,222	↓ 13.9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5kg	40,000	36,800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040	41,150	36,070	↑ 10.9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41,800	41,800	↑ 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600	41,200	42,467	↓ 1.6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0g	9,042	9,150	↑ 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962	8,326	7,930	↑ 14.0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kg	5,205	5,209	↑ 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90	5,164	5,379	↓ 3.2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30kg	495,000	495,000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000	494,800	507,200	↓ 2.4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kg	15,200	14,800	↑ 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560	14,200	13,077	↑ 16.2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kg	8,100	8,400	↑ 1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520	7,200	7,923	↑ 2.2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0g	1,653	1,506	↓ 1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4	1,872	1,927	↓ 14.2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30개	5,530	5,530	↑ 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62	5,271	5,689	↓ 2.8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1)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L	2,613	2,613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5	2,622	2,547	↑ 2.6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11. 11. 기준 / 단위: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812	5,817	5,750	↓ 0.1	↑ 1.1
거세	6,650	6,637	6,561	↑ 0.2	↑ 1.4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71	3,220	3,198	↑ 1.6	↑ 2.3
수	4,070	4,015	3,808	↑ 1.4	↑ 6.9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79	3,331	3,74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4	↓ 9.7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09	409	29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38.2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13	270	32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5.9	↓ 4.0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668	806	1,20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7.1	↓ 44.7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171	1,180	94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8	↑ 23.7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400	2,400	2,43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4

*자료 출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농촌진흥청, 겨울철 필수 돈사 관리 방법 제시

- 주변 울타리 살피고 소독 장비 얼지 않게 관리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철 양돈농가에서 꼭 지켜야 하는 차단방역 방법과 돼지 사양관리 요령을 정부혁신의 하나로 제시했다.
- 최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겨울철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사양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 특히, 구제역(FMD), 돼지유행성설사(PED) 등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소독과 기록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돈사 안팎을 소독해야 한다.
- 차량·사람의 동선과 돼지의 이동통로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돈사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장화를 갈아 신어 교차오염을 막는다.
- 돼지의 이동과 출하는 올인올아웃(All-In-All-Out) 한다. 작업도구는 돈사별로 구분해 사용하며, 반드시 청소-건조-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약과 생석회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도 소독장비와 시설이 얼지 않도록 반드시 보온대책을 마련한다.
- 야생동물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와 울타리를 점검하고, 구서작업을 통해 쥐가 농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한다.

- 돼지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환경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어미돼지의 방 온도는 20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여러 위치에서 낮과 밤의 온도를 측정해 같은 우리 안에서 2.8도 이상, 일일 8.3도 이상 차이가 나면, 단열 시설을 점검한다.
-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수치가 높아지면 사료 먹는 양이 줄고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상대습도는 50~60% 정도가 적정하다.
- 예방백신은 시기에 맞게 접종하며, 수시로 돼지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철저한 차단방역과 세심한 사양관리는 양돈농가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겨울나는 풀사료, ‘꼭꼭’ 눌러주면 ‘쑥쑥’ 늘어요

- 물 빠지는 길 확보, 잘 눌러주면 생산량 15% 향상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을 나는 풀사료는 물이 빠지는 길을 만들어 주고 잘 눌러줘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꼼꼼한 관리를 당부했다.
- 겨울철 눈에 비나 눈이 내리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작물 피해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배수로 정비가 중요하다.
- 배수로나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아 땅도 빨리 마르게 되므로 트랙터 등 장비도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습한 토양이나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은 겨울철에 작물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해 얼거나 잎이 노랗게 변해 말라죽을 수 있다. 특히, 청보리와 호밀은 습해에 약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 땅이 얼기 전에 잘 눌러주기만 해도 풀사료 생산량을 15%가량 늘릴 수 있다.
- 눌러주는 과정에서 뿌리가 토양에 밀착되면 이후 뿌리가 마르거나 어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눌러주기는 트랙터에 롤러(땅다지개)를 부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때 천천히 운행해야 효과적이다.
- 이탈리아 라이그라스(IRG)는 뿌리가 땅 속 깊이 내리지 않고, 흙 표면으로 넓게 퍼져 자라므로 잘 눌러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초지사료과장은 “겨울 사료작물 재배 기술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며, “풀사료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겨울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배수로를 확보하고 눌러주기에 신경 써야한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복숭아·자두·매실’, 성숙기에 노린재 피해 가장 커

- 3년간 핵과류 재배지 조사 결과, 썩덩나무노린재 65% 발생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복숭아, 자두, 매실, 체리 등 핵과류 재배지의 노린재(해충) 발생 상황을 3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과실이 익는 시기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핵과류 재배 면적은 10년 새 50%가량 늘었으며, 온난화의 영향으로 노린재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 노린재는 식물체에 주둥이를 박고 즙액을 빨아 먹기 때문에 어린 열매는 일찍 떨어지거나 모양이 뒤틀린다. 익은 열매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속이 스펀지처럼 변해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
-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5월부터 9월 사이에 복숭아와 자두, 매실, 체리 주산지의 과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앞서 사과와 단감의 피해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핵과류에 발생하는 노린재 종류와 생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분석 결과, 핵과류의 노린재 발생 비율은 썩덩나무노린재 65%, 갈색날개노린재 26%, 가시노린재 7%, 알락수염노린재가 2%로,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피해는 핵과류 전체 생육 기간에 발생했고, 과일 종류와 품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과실이 익어감에 따라 피해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과 체리는 5~6월 사이, 자두는 8월까지, 복숭아는 9월까지 피해를 입었다.
- 따라서 노린재를 예방하려면 과실 성숙기에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 방제용 약제를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고구마 신품종 ‘진ؤل미’, 현장평가회서 우수성 입증

- 외관상품성 · 식미 모두 우수...농업인·유통업체 '좋아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7일 고구마 신품종 ‘진ؤل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고구마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 ‘진ؤل미’는 육질이 부드럽고 황색인 밤고구마이며, 수량이 많고 덩굴쪼김병에 강해 재배안정성이 뛰어나다.
-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씨고구마 5.4톤을 농가에 보급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민간 육묘 업체 등에 바이러스 무병묘 십만 주를 기술이전 하였다.
- 이런 노력으로 재배면적이 223ha(’18년)에서 650ha(’19년)으로 늘고 있으며, 고구마 주산지(전남 해남 등)를 중심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 이번 평가회에서는 ‘진ؤل미’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외관 상품성과 식미 등의 평가와 고구마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외관 상품성과 식미는 기존 ‘ؤل미’보다 뛰어났으며, 특히 수확 직후에도 단맛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회에 참석한 제주 농산물원종장 관계자는 “‘진ؤل미’는 식용 및 전분용으로 재배가 유망해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구마 신품종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통한 씨고구마의 보급과 현장 평가회를 통해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이러스 무병묘의 기술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땅 속 숨은 천연 혈당강화 소재 ‘돼지감자’

- 이눌린 풍부해 체중 조절 · 변비 완화에 도움... 서늘하게 보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혈당을 낮추는 기능성이 있는 ‘이눌린’성분이 풍부해 변비와 체중 조절, 당뇨병 완화에 도움을 주는 돼지감자를 소개했다
- 돼지감자는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 이라 일부 지역에서는 ‘똥딴지’라고도 불리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품종은 없다.
- 돼지감자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다년생 작물이다. 보통 흰색과 자색의 덩이줄기(괴경)가 있다.
- 가뭄이나 병해충 등에 강하며, 배수가 잘 되는 모래가 많은 땅에 잘 적응한다. 4~5월에 파종해 11월부터 수확한다. 겨울철 추위도 잘 견딜 수 있어 땅이 녹는 3월부터 다시 수확할 수 있다.
- 수확한 돼지감자를 그대로 두면 쉽게 썩기 때문에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빛이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돼지감자의 이눌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지역과 토양, 재배 방법, 덩이줄기 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 전국에 유통 중인 돼지감자에서 최저 5.9g, 최대 45.3g까지 함량 차이를 보였다.
- 이에 높은 함량을 나타낸 계통을 간척지 재배 등이 가능하도록 품종화 하는 표준화 기술 연구를 통해 영농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보통 종자발아나 꽃이 피는 시기에 관개가 필요하며, 퇴비를 이용해 땅심을 높여 알맞게 질소 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찻잎의 ‘체지방 감소 성분’ 대량 추출 기술 개발

- 숙성 없이 산, 효소 처리로 95배 증가... 국산 차 가치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숙성 과정 없이 생잎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갈산(gallic acid)’ 성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갈산은 찻잎의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를 분해해 얻을 수 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떫은맛이 강한 특성 때문에 갈산을 얻으려면 6개월가량 후발효차로 만드는 숙성 기간이 필요해 추출이 쉽지 않았다.
- 농촌진흥청은 전남대학교와 함께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가 가장 많은 국산 ‘참녹’ 품종에 산을 처리하고 효소로 가수분해한 결과, 세물차(7~8월 수확) 잎의 갈산이 처리 전보다 95배 증가하고, 차 추출물의 갈산도 42.6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 이번 연구는 2건의 특허 출원을 마치고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준비 중이다.
- 이 기술을 활용하면 후발효차로 만드는 발효 과정 없이도 떫은맛은 적고 체중 감소 효과는 좋은 갈산을 더 많이 생산해 건강기능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수확이 늦어 고급차로 활용할 수 없었던 국내 품종 세물차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원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서형호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활용도가 떨어졌던 찻잎의 우수한 성분을 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활용도가 낮은 세물차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겨울의 문턱’, 대관령은 한우도 이제 집으로

-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8일 입동엔 방목 끝내고 월동 준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아홉 번째 절기인 입동(立冬, 2019. 11. 8)을 맞은 한우연구소(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가 겨울 날 채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해발 800m(미터)인 대관령은 다른 지역보다 한 달 가량 겨울이 앞서 시작돼 11월 초부터는 풀이 자라지 않는다. 한우 700여 마리도 이때 방목을 끝내고 축사로 돌아간다.
- 한우연구소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한우들이 먹을 풀사료를 준비하고 축사 시설을 점검한다.
- 영양가치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옥수수 담근 먹이 450여 톤과 마른 풀 500여 톤을 건초 창고에 저장한다.
- 소들이 겨우내 지낼 축사 내부 청소는 물론 눈과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
- 송아지들은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바닥에 깔짚(톱밥, 볏짚 등)을 충분히 깔아줘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 소 축사별 급수조의 가온기를 미리 점검해야 한겨울에도 소가 마실 물을 확보할 수 있다.
- 또한 방역을 위해 소 축사마다 마련해 둔 발판 소독조가 얼지 않도록 수중 발열기를 설치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 “해마다 입동이 다가오면 소들에게 먹일 사료를 충분히 저장하고, 축사시설을 미리 점검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농업인을 속이는 종자, 시장에서 퇴출

-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종자업계의 불법 관행 개선을 위한 품종 자진취하 신고 기간('19.8.26~10.31, 약 2개월)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관련협회와 업체 등에 자정 촉구를 위해 홍보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42개 업체에서 17작물 363품종을 자진취하 하였다.
 - 주요 작물: 양파 267건, 고추 36건, 무 13건, 토마토 10건, 수박 7건 등
- 그동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함에 따라, 신품종으로 오인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품질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국립종자원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 결과 양파가 이름만 바꿔 유통되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보고,
- 자진취하하지 않은 양파 종자에 대해 유전자분석,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여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름만 달리하여 신고하거나 수입품종을 국내육성품종으로 신고하는 등 업계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종자업계와 협력하여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종자업계에서도 자정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 농업용 하천수·지하수 수질 양호

-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전남 농업용 하천수와 지하수 모두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7일 밝혔다.
-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하천수 37지점과 지하수 20지점을 매년 4월, 7월, 10월에 수집해 농업용수를 분석한 후 농작물 안전생산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4월, 7월, 10월 수질 측정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 지속적으로 전남지역 우수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천수의 경우 수질오염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허용치(8.0mg/L)보다 낮았다. 하천의 부영양화 정도를 나타내는 총인 함량 또한 허용치(0.3mg/L) 이하로 수질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하수의 경우도 유기물질 유입 지표인 염소의 함량은 허용치 (250 mg/L)이하로 정상 농도를 보였다.
- 중금속인 카드뮴, 납, 비소 또한 극미량 수준으로 매우 낮아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성우 연구사는 “전남지역 농업용수의 수질은 농업용으로 이용하기에 매우 우수하지만, 외부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전남도민이 농업용수 오염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대상 선정

- 구례 김미선, 화순 김호영 대표 등 5명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19년 제1회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 대상 5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은 대상 구례 김미선, 최우수상 화순 김호영, 우수상 보성 강선아, 장흥 차주훈, 진도 곽그루이다.
-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대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술개발과 농산물 고품질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확보와 청년 농업인의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 으뜸 청년농업인 심사는 시군에서 추천한 청년농업인 23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10명, 현지조사를 통해 최종 5명을 선정했다. 심사내용은 독창적인 아이디어, 지역자원 활용 농가소득 창출여부, 역량 및 전문성, 성과확산, 주변신망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다.
- 대상을 수상한 구례 김미선 대표는 청년 창업농으로 전국 최연소 20대 여성 이장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 고로쇠를 주원료로 하는 전통장류 개발로 미국수출, 농촌 어르신 고용 창출 등에 기여했다.

- 최우수상인 화순 김호영 대표는 현재 전라남도4-H연합회장으로서 전남 4-H회원 후진양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쌀 나눔행사, 집수리 봉사, 지역 방법대 활동, 드론 자격증 취득 등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 우수상인 보성 강선아 대표는 농업회사법인 (주)우리원을 운영하고, 유기농 쌀 생산 확대와 1인용 소포장 키스미 상품개발, 장흥 차주훈 대표는 버섯 종균분양센터를 운영하며 표고 재배기술 특허, 장흥교도소 버섯종균 기능사반의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진도 곽그루 대표는 지역 마을주민이 생산한 토종 농산물 및 못난이 농산물을 매입·가공하여 전량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여 이웃 농가와 상생하는 농업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으뜸청년농업인은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청년농업인으로서 창농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로 대상 5천만 원, 최우수상 4천만 원, 우수 2천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봉환 기술지원국장은 “시군에서 추천한 으뜸 청년농업인 모두 전남을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는 농업인이라며, 향후에는 분야를 세분화하고 수상자가 으뜸 청년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식용곤충 단백질만 쏙쏙 뽑아 식품원료로 이용한다 •

- 농촌진흥청, 쌍별귀뚜라미 단백질 성분 농축 소재화 기술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식용곤충 중 쌍별귀뚜라미에서 뽑은 단백질 성분을 농축해 식품원료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식용곤충은 미래식품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품미 향상을 위한 식품 소재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쌍별귀뚜라미 내 양질의 단백질 성분만 가수분해하고 농축해서 식품원료로 활용한 것이다. 식용곤충을 그대로 또는 분말로 넣었을 때 녹지 않아 식감과 맛에 영향을 주는 점을 개선했다.
- 우선 소재의 저장성과 성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 쌍별귀뚜라미 내 지질 성분을 제거했다. 시판 중인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처리를 해 적정 온도에서 농축 후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다.
- 이 분말의 단백질 함량은 78.9%로, 쌍별귀뚜라미에 들어 있는 60~70% 수준의 단백질보다 많다. 또한, 단백질 성분을 가수분해 후 분말로 만들었으므로 물에 완전히 녹을 수 있어 다양한 식품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 있다.
- 공정에 의한 원료 성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 지질,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 등 총 23종의 대사체 물질에서 주요한 변화를 보였다.

- 그 중 인지질(LPE)과 잔틴 성분은 착유 과정을 거치며 14.2%, 2.7% 줄어 건조 분말보다 물에 잘 녹았다. 티로신, 글루타민산, 페닐알라닌 등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는 6.6% 늘어 맛과 영양이 개선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렇게 얻어진 연구 결과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개발된 소재로 구미젤리, 양갱, 초콜릿, 만두, 패티, 음료 등을 만드는 조리법과 시제품을 선보였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최준열 발효가공식품과장은 “식용곤충은 높은 영양 성분에도 불구하고 선입견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된 기술이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용곤충의 활용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식용곤충의 생리적 효능 구명과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지급

- 재배농가 11만 명에게 ha당 평균 62만 원 -

- 전라남도는 올해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570억 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과 별개로 전라남도가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유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남지역 농지에서 0.1ha(1천㎡)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벼 대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태로 차등 지급하며, ha당 평균 지급단가는 62만 원 정도다.
- 전라남도는 벼 재배 면적과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매년 상향 지원하고 있다. 2011년 평균 농가당 39만 원, ha당 44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 농가당 52만 원, ha당 62만 원으로 늘었다.
- 전라남도는 지난 2001년 180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7천980억 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했다. 이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8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출처 : 전라남도



농촌진흥청, 종자 특성 판독 기술 보급 시작

- 국내 종자 관련 연구소 · 대학 등에 무상 기술이전... 현장교육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휴대전화 또는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면 종자의 양이 많아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특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한다.
- 이 기술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속종자특성검정기술로, 생명공학기술 중 하나인 표현체를 이용한 영상 기술이다.
- 고속종자특성검정기술을 활용하면 개수에 상관없이 카메라로 종자를 찍어 종자의 면적, 길이, 개수 등 12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측정하기 어려운 종자의 둥글기, 균일성도 바로 분석해 정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하다.
- 이를 통해 현재까지 콩, 팥, 옥수수, 벼, 밀 등 5종류의 종자 20만 알 이상을 실측 비교한 결과,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기존에 40일 걸리던 정보 확인 시간도 4일로 크게 단축됐다.
-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 ‘종자 표현형 측정 프로그램(C-2019-017429)’ 등록을 마치고, 지난달 18일 국내 종자관련 연구소, 대학, 관련 종사자들에게 무상 기술 이전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한정현 과장은 “이 기술의 보급으로 종자개량연구와 신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자들, 종자업체 등 종자관련 사업 종사자들, 농업인 등이 쉽고 빠르게 종자 특성을 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병해충 탐지, 작물 기능 검정 등 관련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검정보리 활용, 디카페인 ‘보리커피’ 개발

- 검정보리 활용, 디카페인 ‘보리커피’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정 비율의 디카페인 커피 원두를 국산 검정보리인 ‘흑누리’로 대체해 카페인 함량을 낮추고 베타글루칸 등 기능성분이 들어있는 디카페인 ‘보리커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최근 카페인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 카페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임산부나 수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디카페인 커피 수요도 느는 추세다.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검정보리인 ‘흑누리’는 디카페인 원두와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커피 맛은 유지하면서 카페인 함량만 90% 이상 줄였다.
- ‘흑누리’ 품종을 이용한 보리커피의 드립 시간이 가장 짧았고 맛 평가 결과도 좋았다. 보리커피 조성물과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데 이어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마쳤다.
- 흑누리 보리커피 1잔에는 커피에는 없는 보리의 기능성분인 베타글루칸이 88mg, 안토시아닌도 42mg 포함되어 있다.
- 보리는 무카페인 이므로 선호하는 일반 원두를 10% 정도 혼합하여 다양한 맛의 디카페인 커피를 즐길 수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보리커피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 보리커피 제품에 대해 79%가 구매의향이 있으며, 임산부나 수유 산모에게 62%가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농특산물 1천170억 원 구매약정

- 보성 쌀, 진도 대파 등 중소농가 농산물 판로 걱정 덜어 -

- 전라남도는 7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농산물 유통가공 업체 등과 농특산물 1천170억 원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성진 Y-MART 대표, 임지완 팜애피아(주) 대표, 정홍진 제일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참여했다.
- 협약에 따라 광주·전남·전북·제주권에 110여개의 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도소매 업체인 Y-MART는 보성에서 생산한 쌀 등 1년간 전남산 농축산물 1천억 원어치를 구매한다.
- 경기도 소재 팜애피아(주)는 코스트코, GS리테일, 신세계, 농협하나로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1차 가공 농산물을 공급하는 전처리 업체다. 전남에서 생산한 양파, 고구마 등 근채류와 오이, 호박 등 과채류 농산물을 연간 100억 원 규모를 구매한다.
- 제일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소재 농산물 포장가공 업체로 전남산 대파, 쪽파,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를 연간 70억 원 상당을 구매한다.
- 전라남도는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과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수 농특산물 생산공급 및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기업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 농가 간 계약재배를 통해 신선하고 안정적 농수특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올해에만 11개 업체와 3천390억 원의 구매약정을 체결,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기술 표준화로 화분 매개 곤충 생산 효율 높인다

- 농촌진흥청, 5일 생산자 교육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 시연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5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에서 국내 화분 매개 곤충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화분 매개 곤충 생산자 교육 및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시연회’를 연다.
- 화분 매개 곤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분 매개 곤충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곤충별 사육 기술 표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이날 각 도 농업기술원, 양봉협회, 대한민국수정벌협회 등에서 참가한 화분 매개 곤충 생산자들은 표준 이용과 관리 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 ‘국내 화분 매개 곤충 연구 현황과 전망’을 시작으로 딸기와 수박 화분 매개용 꿀벌의 표준 사육 기술, 화분 매개 전용 꿀벌벌통의 특성, 화분 매개 곤충 대상 농약 관리 및 독성 평가 등 주제 발표와 현안 토의가 이어진다.
- ICT를 이용한 뒤영벌 사육시스템과 스마트 화분 매개용 벌통 시연회를 진행한다. ICT 사육시스템은 통합센서를 이용해 뒤영벌 사육 공정 등을 관찰함으로써 생산량은 늘리고 노동력 부담은 덜는 방식이다. 스마트 화분 매개용 벌통은 IoT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벌통을 관리할 수 있어 작물 생산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롯데슈퍼, 전남쌀 팔아주기 앞장

- 11월부터 전국 매장온라인서 10억 상당 쌀 판매 -

- 전라남도가 롯데슈퍼와 손잡고 전남쌀 판매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 롯데슈퍼는 11월부터 450여 전국 매장과 온라인 롯데 프레스에서 전남쌀 420여t, 10억 원 상당을 판매한다.
- 이번 행사에 판매하는 쌀은 2019년산 햅쌀이다. 함평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생산한 함평천지 쌀이다. 갓 도정해 신선하고 밥맛이 구수하며 찰져 구매 소비자가 늘고 있다.
- 롯데슈퍼는 지난 7월 보성 ‘녹차미인쌀’과 무안 ‘황토랑쌀’을 전국 매장에 입점 시켜 판매하는 등 전남쌀 팔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전남쌀은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도정 과정에서도 색채 선별기를 통해 깨진 쌀, 이물질 등을 선별하는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쌀 품질을 고급화하고, 브랜드쌀을 육성해 다른 시도 학교급식과 홈쇼핑, 단체급식 등 대량 소비처 납품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남쌀 판매와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라남도와 롯데슈퍼는 지난 6월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 체결 후 롯데슈퍼 풍암점, 두암점, 문흥점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과 제철 농산물 공동 마케팅으로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축산 현장 수의사 가축 질병 예방 앞장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회와 함께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교육 -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전라남도수의사회와 합동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축산 현장 수의사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교육은 그동안 전남수의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을 현장 중심의 방역교육으로 전환, 지난 8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본소, 동부, 서부, 북부지소, 4개 권역별로 이뤄졌다.
- 방역교육 강사로 나선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우리나라 육지부의 유일한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가축 방역대책과 지속적으로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고병원성AI 방역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방역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동물병원 임상 수의사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지영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임상수의사들과 공동으로 펼치는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 검사에 최선을 다해 조기 종식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지난 9월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 현장에서 종사하는 임상 수의사들께서 질병 예찰 활동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쌀의 무한변신, 라이스쇼(RICE SHOW)’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흔한’, ‘전통적인’ 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쌀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자, 2019년 11월 13일(14시~20시)에 2040 유동인구가 많은 타임스퀘어 영등포점에서 쌀 홍보 기획전을 추진한다.
-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가래떡데이 주간에 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젊은 수요층에게 쌀이 흰쌀밥의 이미지가 아닌 향기나는 쌀, 쌀 피자, 쌀 디저트 등 새롭고 다채로운 상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최근 해외시장에서도 수요가 증가하여 올 연말 쌀가공품 수출 1억불 달성에 기여가 큰 컵떡볶이, 가공밥, 쌀음료 등도 함께 전시하고 시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쌀가공품 수출액: (‘18) 89백 불 → (‘19.1~10월) 87 (전년동기 71 대비 23%)
- 특히, 이번 행사는 ‘패션쇼’ 형식을 적용하여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계획이다.
- 우선 ‘라이스 쇼룸>Showroom)’을 구성하여, 향기 나는 쌀, 천연색소 쌀, 프리미엄 쌀 등 쌀의 트렌디(Trendy)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쌀 제품을 전시한다.
- 아울러, 쌀 음료, 쌀 시리얼, 쌀 피자 등 쌀로 만든 이색 음식과 쌀 가공품을 시식해 볼 수 있는 ‘라이스 바(bar)’를 구성하여, 소비자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부대 행사로는 ‘라이스쇼 레드카펫 포토존’을 마련하여 다양한 쌀 캐릭터들과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으며,
- 룰렛 돌리기, 포토존 인증샷, 행운 추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쌀 캐릭터 굿즈와 프리미엄 쌀, 다양한 쌀 가공품(쌀스틱, 컵밥, 쌀음료 등)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본 행사에 앞서 11월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쌀 정보 제공 누리집인 ‘미소곡간’과 ‘쌀이답이다’에서 온라인 이벤트(떡볶이 및 가래떡 경품 증정)를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 농협 하나로마트(5개소, 각 1,111개 내외) 및 각 지자체에서 가래떡 나눔 행사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농업과 쌀 소비에 대해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매일 흔하게 먹는 쌀밥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새롭고 다양하고, 간편하며, 트렌디(Trendy)한 쌀의 면모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한 쌀을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쌀과 쌀 가공품을 개발·판매, 홍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담양군, 시목단감 으뜸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

- 28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담양군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참가 -

-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에서 담양 대덕면 신현만(59)씨가 대회 최고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생산자와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서는 직거래 장터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 또한 ‘생명이 숨 쉬는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생산된 곡류,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특작, 특별·가공류 등 6개 부분 총 300여 농산물이 출품돼 으뜸농산물을 가리기 위한 품평회를 진행했다.
- (사)한국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에서는 대덕면 회원 신현만 씨가 ‘과일류부문’에 시목단감을 출품해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받았다.
- 대덕면 시목마을에서 생산된 시목단감은 현재 16.1ha의 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며, 유기농재배를 통한 ‘시목단감’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한 살림, 학교급식 등에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명품 멜론에 이은 명품 체리 생산을 위해 뭉쳤다

- 곡성군, 새소득과수 육성을 위한 체리 재배기술 교육 실시 -

- 곡성군(유근기 군수)은 지난 7일 체리 재배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체리를 재배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체리 수세 관리법, 착과율 향상 및 병해충 방제기술, 체리 공동선별과 출하계획 등을 중심으로 과수특작팀장 윤현석 지도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 젊은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체리는 타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외국산(미국산) 체리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산 체리는 안정성, 신선도, 맛에서 외국산 체리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꾸준히 증가하는 체리 소비시장에서 국내산 체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으며
- “재배기술 향상 및 유통 선별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체리를 생산할 것이며 향후 곡성이 전국 최고의 체리 산지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에 곡성군은 앞으로 식재 지원 및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체리 생산단지를 50ha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곡성멜론 생산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약

- 멜론마을 조성방향,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후관리 등 -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곡성의 대표적 소득 작목인 곡성멜론 생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과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 군은 곡성멜론 생산 농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열고 곡성멜론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멜론마을 조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형 강의를 통해 멜론마을에 대한 성공적인 초석을 다졌다.
- 또한 곡성멜론의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지리적 표시 등록 및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교육하여 생산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 이처럼 곡성군은 신선멜론 중심의 생산·판매의 한계를 넘어 농촌융복합산업 진입을 목표로 곡성멜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3개년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담당자는 “멜론마을 조성 및 지리적표시제 등록, 농촌융복합 인증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 강연을 통해 생산농가의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전문내용을 숙지함으로서 곡성멜론 생산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2019년산 태풍피해 벼 첫 매입 시작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19년산 태풍피해 벼 첫 매입을 옥과 농협 유통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태풍피해 벼 매입은 각 읍면에 마련된 정부양곡창고 11개소에서 이루어지며, 피해 농가가 희망하는 벼 전량을 매입한다.
- 다만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으며, 이 외에는 품종 제한 없이 알곡 무게 600kg, 30kg단위로 매입한다.
- 매입에 따른 중간정산금은 수매 당일 30kg 포대 당 2만원이 지급되며, 최종 대금 정산은 전국 쌀 가격이 결정되는 12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곡성군



구례군, 가을 농촌일손 돕기 대대적 추진

- 농번기 농촌 일손지원을 통해 농촌 나눔·체험·교류 연계 -

-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10월 3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농촌일손 돕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자 5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 군은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장애·고령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가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다
- 이에,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군 실·과 및 읍·면별로 농가와 연계 후, 자체 일정을 수립해 지난달부터 감, 산수유 수확 등의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6개부서 525명이 참여하고 있다.
- 또한, 작업도구와 점심 등은 직접 준비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하여 농업인들과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 군 관계자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구례군



구례군, 양봉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 개최

-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홍보관에서 지역 양봉농가 80여 명을 대상으로 양봉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컨설팅은 최근 변화하는 양봉기술 향상에 신속히 대처하고 고품질 유기농 양봉 산물의 대량생산 및 실패 없는 꿀벌 관리요령, 겨울나기 보온상자 보관법, 프로폴리스 채취, 응애 구제, 항생제 오남용 사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겨울철 봉군 관리시 노지에서 겨울나기 포장을 할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아 습기와 냉기가 벌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하며 찬바람이 몰아치는 지형에 벌통을 두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박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양봉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화분, 로열젤리 등은 인체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개선작용에 효과가 있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천연 항생제로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청정지역 구례에서 기른 우수한 꿀벌을 양봉농가의 신소득원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구례군



해남군, 새 브랜드 쌀‘땅끝햇살 秀’출시

- 전남농업기술원 육성 고품질 품종 새청무벼 이용 -

- 해남군이 새 브랜드쌀인‘땅끝햇살 秀’를 출시한다.
- 땅끝햇살 秀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최고품질의 우량품종인 새청무벼를 원료로 하고 있으며, 해남군 쌀 브랜드인 땅끝햇살보다 한단계 높은 품질을 담았다는 의미이다.
- 전남 최대 농경지를 보유한 해남군은 소비량 감소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쌀 판매시장에서 품질 차별화를 통한 해남쌀의 인지도 제고 및 판매확대를 위해 최고품질 우량품종인 새청무 재배단지 200ha를 조성했다.
- 새청무벼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전남지역에 맞게 육성한 고품질 벼 품종으로, 신동진, 새일미 등 일반벼보다 수발아, 도복, 병충해에 강하며 도정수율이 높고 밥맛이 매우 좋아 소비자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해남군은 새청무벼 재배 시범단지에서 고품질 쌀 품질기준에 맞춰 생산한 엄선된 원재료만을 선별 구매 후, 도정해 상품을 출시했다.
- ‘땅끝햇살 秀’는 해남 황산농협에서 출시된다.
- 새청무 벼는 농가의 재배 선호도가 높고, 소비자 호응도 좋아 내년도 해남군 공공비축비 구매품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직 정부보급종 공급이 되지않아 올해는 약 320톤, 5,300ha 면적 분량의 새청무벼 종자를 자체 채종포에서 생산, 연말부터 관내 재배 희망 농가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출처 : 해남군



함평군,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함평군(권한대행 나운수)이 다음달 4일까지 2020년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접수받는다.
-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본인 소유 농지를 등록한 농가로,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퇴비·가축분퇴비)이다.
-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포당(20kg) 1,1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100원~800원으로 책정됐다.
- 군은 군비 정액의무부담금(600원) 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비종(비료종류)과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 사업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내달 4일까지 농지 관할 읍·면사무소(산업팀)에 비종수량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농지가 여러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다만 미등록된 농지가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 정보에 반드시 해당 농지를 먼저 등록한 후 신청해야 한다.
-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지역 내 자연순환농업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기한 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농지추가 등 경작관계사항도 빠짐없이 변경해 내년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함평군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모링가 먹고 체험하는 팜파티 큰 호응 •

- 가족단위 관광객과 모링가 비누·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즐겨 -

- 완도군은 지난 26일 완도읍 대야리 아들래농원(대표 김남희)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 50명을 대상으로 모링가를 먹고, 체험하고, 즐기는 팜(farm)파티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 모링가는 식물성 단백질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과 편식 등으로 인해 균형이 깨진 신체에 부족한 영양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천연항생제라고도 불린다.
- 아들래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완도산 모링가로 분말, 환, 건조 잎, 티백, 선식 등을 생산한다.
- 이중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상품은 티백과 건조 잎이며, 건조 잎은 밥을 지을 때 넣어도 되고 물에 불려서 나물로도 먹을 수 있다.
- 이날 행사는 모링가 비누 만들기, 모링가로 삼행시 짓기, 모링가 쿠키 만들기, 모링가를 활용한 음식 경연대회, 완도 농·수산물 반값 행사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완도군 관계자는 “팜파티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 유대감과 신뢰감을 형성해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한편 아들래농원(대표 김남희)은 6차 산업을 추구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친환경 모링가를 생산하고,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물을 확보하여 양질의 제품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완도군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11. 11. 시카고 선물거래소) •

- 옥수수 선물가격, 미국 농무부가 미국의 수확 전망을 하향조정한 후 상승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4%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기술 매도와 미국 정부의 대규모 세계 물량 전망으로 인해 금요일 3세션 연속 주간 하락세를 보였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농무부가 월간보고서에서 미국 옥수수 수확량 및 생산량 전망치를 낮춘 이후 금요일 7세션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6%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 농무부가 올 여름과 가을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농작물 수확과 수확 전망을 변경하지 않은 가운데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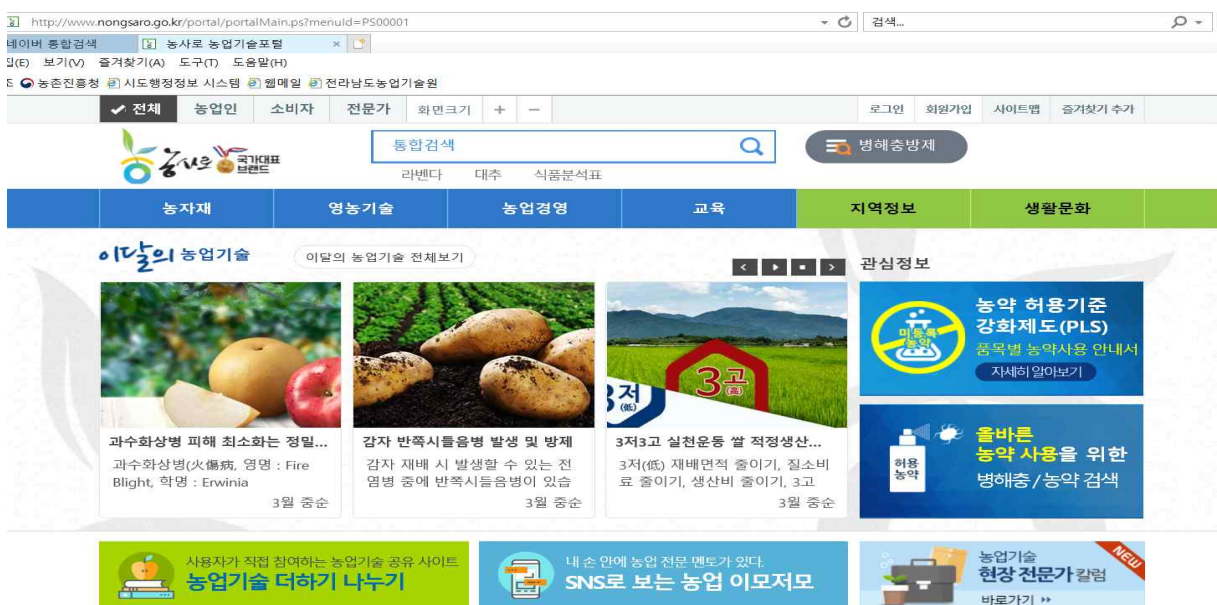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농촌진흥청 농사로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경영기술, 농식품소비트렌드,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농식품산업동향,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관측정보에서는 년도별로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www.aglook.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보소개, 농업전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관측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속보, Daily&Weekly를 해당년도와 월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엽근채소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 양념채소는 건고추, 양파, 마늘, 대파
 - 과일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수입과일
 - 과채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풋고추
 - 축산은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 곡물은 쌀, 콩, 국제곡물, 감자
 - 버섯은 느타리, 양송이
- 품목동향에서는 가격&반입량, 도매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격&반입량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등
 - 도매가격동향은 품목별로 전일가격, 당일가격, 등락률 등
- 알림광장의 관측동영상에서는 농업관측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REI AgLook website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농업관측' (Agricultural Observation), '관측연구 발간물' (Observation Research Publications), '품목동향' (Commodity Trends), '소비정보' (Consumption Information), '알림광장' (Notice Board), '본보소개' (About Us), and '농업전망' (Agricultural Outlook).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idebar with '01 농업관측정보', '02 품목동향', and '03 농업전망'. The central part displays a grid of articles with thumbnails and titles, such as '2019-02-25 발간자료 2018년 겨울호 농업·농촌경...' and '2019-03-05 발보 과채관측 03월호'. Below this, there's a section for '관측동영상' (Observation Videos) and '도매가격동향' (Wholesale Price Trends) for the date 2019-03-20. A table shows price and volume data for various commodities like '양송이' (Mushrooms) and '풋고추' (Hot Peppers).

품목	전일	당일	전일대비 등락률(%)
양송이	17,555	19,179	9.3
풋고추	49,294	47,565	3.5



청렴한세상 - 자물쇠 하나도 돌려준 청백리



익산군수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때, 말한 필을 쏙싹히 타고 와서 아무도 그가 태수인지 몰랐다는 청백리 각안방 선생. 임기를 마치고 짐속에 관아의 자물쇠가 섞여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다시 먼길을 돌아 관아로 돌려보낸 일화를 가진, 그는 백성들에게 어진 마음으로 다가선 군수로 그 업적을 인정받아 백성들이 살아있는 태수나 현감에게 지어주었던 생사당을 지어 칭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58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